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 미 증시, 매크로 불안 완화, 실적시즌 모멘텀 회복 등으로 급등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3일(월) 미국 증시는 중국 CXMT의 추가 증설 우려에도, 트럼프의 이란 폭격 취소에 따른 WTI 급락(-5.4%) 및 미 10년물 금리 4.7%대 하회, MS(+4.9%), 아마존(+4.6%) 등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2분기 호실적에 따른 AI 수익성 불안 완화 등에 힘입어 급등(다우+1.3%, S&P500 +1.5%, 나스닥 +2.1%,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1%).

최근 주요국 증시의 변동성 유발 요인이었던 미-이란 군사 긴장은 트럼프의 TACO로 다시 완화되고 있는 모습. 덕분에 유가는 급락했으며, 전일 뉴욕 연은 총재의 “하반기 인플레이션 둔화, AI 산업의 금융 안정 리스크 제한적”이라는 발언도 매크로상 위험선호심리 개선에 기여한 상황.

주도주인 2분기 빅테크, 반도체 등 주력 업종들의 호실적을 확인하면서, AI의 부정적인 내러티브가 환기되고 있다는 점도 안도요인.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 아마존, 알파벳, 메타, MS 4대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2026년 CAPEX 가이드를 기존 7,100억달러에서 7,550억달러로 상향한 점이 최근 증시 회복의 동력이었음. 2027년 CAPEX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블룸버그 컨센서스상 확인되는 2027년 CAPEX 가 1조달러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

이에 더해 7월 ISM 제조업 PMI(55.6 vs 컨센 54.0 상회) 내 산업 담당자 코멘트에서도 AI 투자 확대가 실제 구매로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 일례로, 1) 컴퓨터 및 전자 업종에서는 반도체, AI, HPC 성장으로 우호적인 수요 환경이 조성, 2) 기계 업종에서는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의 실 가동 단계 진입으로 데이터센터용 제품 생산이 전면 확대, 3) 전기장비 업종에서는 코로나때보다 더한 부품 가격과 리드타임 상승 추세 지속 등이 언급한 점이 대표적 근거.

물론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약화, 중국 AI 및 메모리 업체들과의 경쟁 등 기존 우려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만큼, 시장의 검증 작업은 차분기 실적시즌까지도 계속될 수 있기는 함. 하지만 반도체, AI 등 주도주들의 이익 신뢰성 및 가시성을 상당부분 회복해 준 성격이 강하기에, 수익성, 사모신용 등 AI 산업을 둘러싼 불안은 정점을 통과한 것으로 무게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이 적절.

전일 국내 증시는 지난 금요일 역대급 폭등에 따른 반도체 중심의 차익실현 여파로 코스피에서는 매도 사이드카가 걸린 반면, 코스닥은 낙폭 과대 심화 및 코스피와 키맞추기 수요 등에 힘입어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양 시장 간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혼조세 마감(코스피 -5.1%, 코스닥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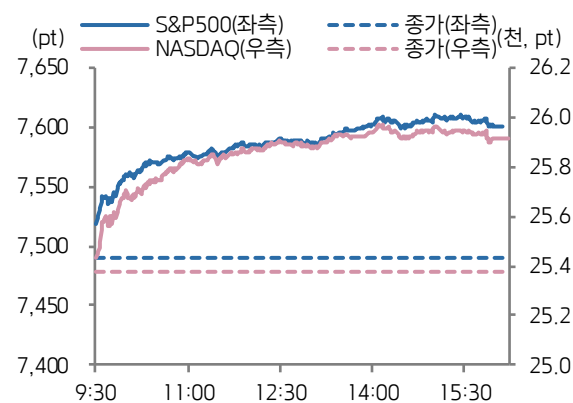
금일에는 7월 폭락 및 전일 급락에 대한 과매도 인식 지속, 트럼프 TACO발 유가 및 금리 하락, 미국 반도체주들의 장중 반등 성공 등에 힘입어 강세 흐름을 보일 전망. 또 장 마감 후 팔란티어(+2.1%)가 상업 및 정부 매출 급증에 힘입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및 가이드스 상향, Rule of 40의 +155% 기록(수익성 지표) 등 시간외 13%대 폭등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 AI 밸류체인 핵심 중 하나인 어플리케이션 카테고리에서 소프트웨어를 통한 AI 수익화를 입증한 것이라는 점에서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호재성 재료가 될 전망.

한편, 여전히 일간 수익률 변화폭이 크기는 하지만, 이익 모멘텀 둔화 국면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은 안도 요인. 실제로, 26년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7월 2주차에 970.8조원을 고점으로 정체 국면에 들어갔었으며, 이후 7월 5주차(~7월 30일)까지 963.4조원대까지 하향조정됨에 따라 증시의 기초 체력 저하를 유발했던 실정.

그러나 7월 말 반도체 포함 주력 업종들의 2분기 호실적에 힘입어, 26년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974.9조원 대로 재차 상향 국면으로 전환한 상태.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 합산 거래대금이 코스피 거래대금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7월 30일 33.4% → 7월 31일 6.6% → 8월 1일 5.4%로 급감했다는 점도 눈 여겨볼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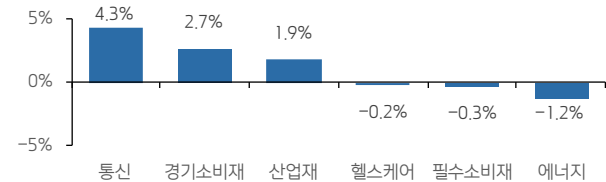
아직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사안이나, 7월 31일 이후 2거래일 간 코스피의 일중 변동성 자체가 줄어든 영향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임. 이처럼 이익 불확실성, 수급 고임 현상이 덜해지고 있다는 점은 한동안 비정상적인 변동성과 연쇄 급락을 겪었던 국내 증시의 정상화 가능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경로를 설정할 필요.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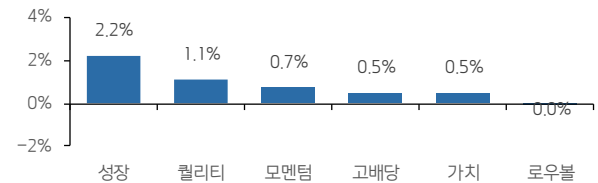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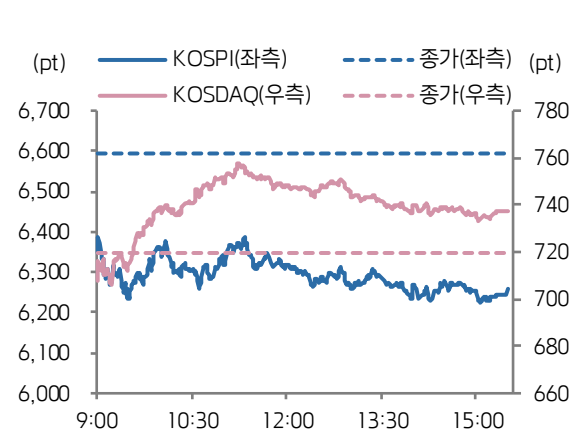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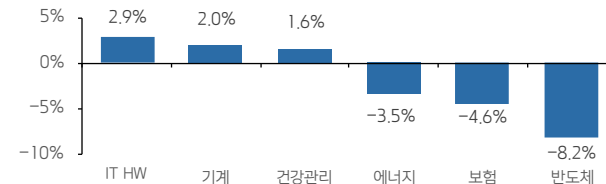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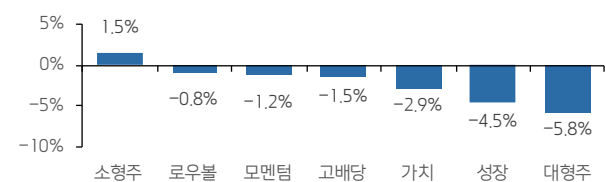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종목

| 종목      | 종가     | DTD(%) | YTD(%)   | 종목      | 종가       | DTD(%) | YTD(%)  |
|---------|--------|--------|----------|---------|----------|--------|---------|
| 애플      | 303.42 | -1.78% | +11.61%  | GM      | 87.68    | -1.33% | +7.82%  |
| 마이크로소프트 | 487.65 | +4.93% | +0.83%   | 일라이릴리   | 1,121.36 | -2.39% | +4.34%  |
| 알파벳     | 373.51 | +4.88% | +19.33%  | 월마트     | 110.71   | -0.44% | -0.63%  |
| 메타      | 590.24 | +6.02% | -10.58%  | JP모건    | 352.64   | +0.24% | +9.44%  |
| 아마존     | 284.02 | +4.58% | +23.05%  | 엑손모빌    | 155.06   | -0.24% | +28.85% |
| 테슬라     | 322.08 | +3.49% | -28.38%  | 세브론     | 193.18   | -1.85% | +26.75% |
| 엔비디아    | 206.64 | +2.93% | +10.8%   | 제너럴일렉트릭 | 110.71   | -0.4%  | -0.6%   |
| 브로드컴    | 392.23 | +0.76% | +13.33%  | 캐터필러    | 830.03   | +1.87% | +44.89% |
| AMD     | 484.64 | +1.78% | +126.3%  | 보잉      | 233.49   | +8.03% | +7.54%  |
| 마이크론    | 829.50 | +0.79% | +190.63% | 넥스트에라   | 86.55    | -0.4%  | +7.8%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주요 지수

| 주식시장        |           |        |         | 외환시장      |          |         |         |
|-------------|-----------|--------|---------|-----------|----------|---------|---------|
| 지수          | 가격        | DTD(%) | YTD(%)  | 지수        | 가격       | DTD(%)  | YTD(%)  |
| 코스피         | 6,257.45  | -5.12% | +48.49% | USD/KRW   | 1,431.95 | -0.49%  | -0.52%  |
| 코스피200      | 986.72    | -5.74% | +62.83% | 달러 지수     | 99.96    | +0.04%  | +1.66%  |
| 코스닥         | 737.35    | +2.44% | -20.33% | EUR/USD   | 1.15     | -0.16%  | -2.02%  |
| 코스닥150      | 1,250.79  | +2.98% | -19.16% | USD/CNH   | 6.76     | +0.08%  | -3.12%  |
| S&P500      | 7,600.50  | +1.48% | +11.03% | USD/JPY   | 157.18   | -0.14%  | +0.3%   |
| NASDAQ      | 25,913.90 | +2.13% | +11.5%  | 채권시장      |          |         |         |
| 다우          | 53,178.41 | +1.32% | +10.64% | 가격        | DTD(bp)  | YTD(bp) |         |
| VIX         | 15.86     | -0.81% | +6.09%  | 국고채 3년    | 3.742    | -1.8bp  | +79.1bp |
| 러셀2000      | 2,981.91  | +1.73% | +20.15% | 국고채 10년   | 4.260    | -0.2bp  | +87.5bp |
| 필라. 반도체     | 11,430.35 | +1.05% | +61.37% | 미국 국채 2년  | 4.237    | -5.4bp  | +76.4bp |
| 다우 운송       | 21,231.19 | +0.91% | +22.32% | 미국 국채 10년 | 4.676    | -5.9bp  | +50.9bp |
| 상해종합        | 3,809.66  | -0.59% | -4.01%  | 미국 국채 30년 | 5.227    | -4.5bp  | +38.4bp |
| 항생 H        | 8,652.15  | +0.46% | -2.93%  | 독일 국채 10년 | 3.152    | -5.4bp  | +29.7bp |
| 인도 SENSEX   | 78,639.03 | +0.7%  | -7.72%  | 원자재 시장    |          |         |         |
| 유럽, ETFs    |           |        |         | 가격        | DTD(%)   | YTD(%)  |         |
| Eurostoxx50 | 6,426.50  | +1.08% | +10.97% | WTI       | 80.34    | -5.11%  | +40.92% |
| MSCI 전세계 지수 | 1,131.01  | +0.94% | +11.47% | 브렌트유      | 83.77    | -7.05%  | +37.67% |
| MSCI DM 지수  | 4,905.02  | +1.18% | +10.71% | 금         | 4,090.50 | -0.4%   | -9.05%  |
| MSCI EM 지수  | 1,651.40  | -0.87% | +17.59% | 은         | 57.86    | +0.12%  | -18.05% |
| MSCI 한국 ETF | 160.24    | +2%    | +64.82% | 구리        | 654.05   | +1.16%  | +15.11% |
| 디지털화폐       |           |        |         | BDI       | 2,732.00 | +2.21%  | +45.55% |
| 비트코인        | 63,741.88 | +0.5%  | -27.27% | 옥수수       | 472.50   | +1.83%  | +2.61%  |
| 이더리움        | 1,867.47  | -0.77% | -37.28% | 밀         | 651.00   | +1.84%  | +19.29% |
|             |           |        |         | 대두        | 1,192.25 | +0.4%   | +12%    |
|             |           |        |         | 커피        | 304.70   | -3.16%  | -3.13%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8월 3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서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